

# 《송서》 고구려국전의 사료적가치와 제한성

허 명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대국주의사가들과 사대주의사가들이 써놓은 력사자료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나라의 력사를 주체적립장에서 정확히 해명하여야 한다.》(《김정일전집》 제2권 164~165페이지)

지난날의 력사자료들의 사료적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리용하는것은 력사연구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하나의 력사기록을 놓고도 수많은 연구자들이 그 사료적가치평가에서 서로 다른 견해, 지어 서로 상반되는 견해를 가지게 되고 나중에는 오도하기까지 하는 실정에서 더욱더 중요하게 제기된다. 《송서》 고구려국전의 사료적가치평가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이 글에서는 《송서》 고구려국전의 사료적가치와 제한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고구려-송관계의 진면모와 고구려가 우리 민족의 당당한 주권국가, 동방의 강대국이였음을 밝히려고 한다.

《송서》는 량나라 사람 심약이 쓴 송(420-479년)왕조의 단대사로서 487~502년에 편찬되었으며 총 100권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책의 동이전에 고구려국전이 있다.

이러한 《송서》 고구려국전의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구성되어있다.

첫번째 부분에는 당시 고구려의 통치령역이 서술되어있고 두번째 부분에는 고구려와 진나라(동진)사이의 외교무역관계 기사가 실려있다. 그리고 세번째 부분에는 고구려-송관계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있는데 《송서》 고구려국전에서 이 기사가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송서》 고구려국전은 고구려력사연구에서 일정한 사료적가치를 가진다.

그것은 이것이 고구려가 존재하던 시기

에 씌여진 기록이기때문이다.

일정한 력사적사실을 반영한 기록은 그것이 당대에 혹은 당대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씌여진것일수록 그 사료적가치가 높기 마련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송서》 고구려국전은 고구려가 존재하던 5세기말-6세기초에 당대 사람인 심약\*에 의하여 저술된 기록인것으로 하여 일정한 사료적가치를 가진다.

\*심약(441-513년)은 송나라와 제나라에서 벼슬을 하였으며 량무제가 즉위한 후 상서복야, 상서령의 관직을 력임하였다.

《송서》 고구려국전은 무엇보다먼저 고구려-송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로 된다.

《송서》 고구려국전이 고구려-송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로 되는것은 그것이 고구려-송관계를 반영한 제일 앞선 기록이기때문이다.

고구려-송관계 기사들은 《송서》 고구려국전을 제외하고도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남제서》 고려(고구려)전, 《량서》 고구려전, 《남사》 고구려전, 《자치통감》 송기 등에 실려있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1145년에, 《남제서》는 량나라시기(502-557년)에, 《량서》, 《남사》는 당나라시기(618-907년)에, 《자치통감》은 송나라시기(960-1279년)에 각각 편찬되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송서》 고구려국전은 고구려-송관계를 전하는 가장 앞선 시기의 기록인것으로 하여 중요한 사료적가치를 가진다.

《송서》 고구려국전이 고구려-송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고구려-송관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있기때문이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송관계가 5차 기록되어있으며 그것도 북연왕 풍홍치단사건을 둘러싼 기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단편적으로 서술되어있다. 그리고 《송서》보다 후에 편찬된 《남사》 고구려전은 《송서》고구려국전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량서》, 《남제서》에서는 송나라시기 고구려왕에게 관직과 작위를 보내왔다는 매우 단편적인 기사를 기록하는데 그치였으며 《자치통감》에서는 북연왕 풍홍치단사건을 둘러싼 고구려-송관계 기사만을 취급하고 있다. 같은 책인 《송서》안에서도 본기 부분에는 고구려와의 외교무역관계 기사들이 일부 있으나 두 부분에 대응되는 기사에 한하여서는 고구려전의 기사가 더 구체적이다.

실례로 439년조의 기사를 보면 본기에는 고구려가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외교무역을 진행한것으로만 되어있으나 고구려전에는 고구려가 송나라의 북벌에 필요한 말 800필을 수출한데 대하여 서술하고있다.

《송서》고구려국전의 고구려-송관계 기사들은 두나라사이에 평화적인 외교무역관계가 지속되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송고조는 420년 왕위에 오른 뒤 고구려의 장수왕에게 《정동대장군 사지절 도독 영주제군사 락랑공》이라는 왕호를 보내면서 송나라가 섰음을 알리고 평화적관계를 유지하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422년에는 장수왕에게 《산기상시 독평주제군사》의 벼슬을 더 보내왔다. 이것은 고구려와의 관계를 중시한 송나라 집권층의 립장을 반영한것이다. 이에 대하여 고구려는 423년에 사신을 보낸데 이어 424년에 장사 마루 등을 보내어 송나라와의 외교무역관계를 맺었으며 송나라는 이에 대하여 알자 주소백과 부알자 왕소자 등을 보내어 평화적인 외교무역관계를 유지할 자기의 립장을 밝혔다.

그리하여 463년에 송나라는 고구려왕에게 이전보다 더 높은 《거기대장군 개부의동삼사》의 벼슬을 보내어왔다. 그후에도 두나라사이의 평화적인 외교무역관계는 송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두나라가 평화적인 외교무역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것은 두나라의 리해관계의 일치와 관련되었다.

고구려는 당시 경제적으로는 송나라를 통하여 중국의 남쪽지방과 동남아시아의 인디아, 중근동나라들의 특산품들을 사들이기 위하여 또 정치적으로는 송나라로 하여금 북위의 후방을 견제하게 하고 백제와도 한쪽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고 송나라도 역시 동방의 강국 고구려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북위를 견제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리해관계로 하여 고구려는 송나라가 존재한 약 60년간에 20차에 걸쳐 송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이것은 평균 3년에 한번씩 사신을 보낸것으로 된다.

이처럼 《송서》고구려국전은 두나라사이에 평화적인 외교무역관계가 지속되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송서》고구려국전은 다음으로 고구려의 높은 대외적지위의 일단을 보여준다.

그것은 북연왕 풍홍치단사건을 둘러싼 두나라사이관계를 통하여 알수 있다.

《송서》고구려국전은 풍홍치단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두나라사이관계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있다.

《원가15년(438년)에 다시 색로(북위-필자)의 공격을 받은 풍홍이 패하여 고구려의 북풍성으로 달아나 (송나라에)표문을 올려 자신을 받아들여달라고 하였다. (이에) 태조는 왕백구와 조차홍을 사신으로 파견하여 이들을 맞이하는 한편 고구려로 하여금 보내주도록 하였다. 련(장수왕)은 홍이 남쪽으로 가는것을 원하지 않아 손수, 고구 등을 파견하여 그를 습격해서 죽였다. 백

구 등은 휘하의 7천여명을 거느리고 수 등을 몰래 공격하여 수를 사로잡고 고구 등 2명을 살해하였다. 련은 백구 등이 사람을 죽였다 하여 그들을 체포하여 (송나라로) 보냈다. 황제는 멀리 떨어진 나라의 뜻을 거슬리고싶지 않아 백구 등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놓아주었다.》

이 기사에서 보는것처럼 송나라는 고구려에 있던 북연왕 풍홍이 송나라로 망명할것을 요청하자 거기에 응하면서 왕백구와 조차홍을 사신으로 파견하는 한편 고구려로 하여금 그를 보내주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고구려는 이것을 내정간섭행위로 간주하고 풍홍을 단호히 처단하고 자기 나라의 장수들을 살해한 백구 등을 체포하여 송나라에 보내어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범죄자들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송나라는 고구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백구 등을 립시적이나마 감옥에 가두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고구려가 송나라와 대등한 지위를 차지하고있었으며 자기의 당당한 주권을 행사한 강대국이였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송서》 고구려국전은 다음으로 송나라시기(420-479년)에 고구려의 서변이 대릉하하류-의무려산계선이였다는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로 된다.

《송서》 고구려국전에는 《동이 고구려국은 지금 한나라의 룡동군을 다스리고있다.》고 서술되어있다.

《한서》 지리지에 의하면 한나라 룡동군의 서변은 대릉하하류-의무려산계선으로 되어있는것만큼 이것은 이 시기 고구려의 서북방령역이 대릉하하류-의무려산계선에 미치고있었다는것을 확증해준다.

고구려의 서변이 대릉하하류-의무려산계선이였다는것은 다음의 사실들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 광개토왕9년조에 의하면 400년 2월 후연, (384-409년)왕 모용성이 고구려를 침략하여 한때 700여리의 지역을 차지하고 신성, 남소성을 함락시켰으나 고구려는 인차 반공격을 하여 적들을 몰아냈으며 402년 5월에는 후연의 평주자사가 도사리고있던 대릉하중류계선의 숙군성(조양 동북)을 공격, 함락하였다고 한다. 고구려땅으로 700여리를 쳐들어왔다는것은 후연군의 출발진지가 고구려의 전초기지인 남소성서쪽 700리 지점 즉 의무려산줄기 또는 그 서쪽계선에 있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이에 앞서 385년 고구려는 후연의 룡동군, 현도군을 공격하여 차지하였다가 얼마후에 철수하였다. 후연의 장수인 모용농이 회복하였다고 하는 룡동, 현도 두 지역은 바로 대릉하하류-의무려산줄기 서쪽지역에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4세기말부터 고구려가 대릉하하류-의무려산줄기 이동지역을 확고히 차지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놓고볼 때 《송서》 고구려국전의 기사는 고구려가 4세기말이후 5세기에도 여전히 대릉하하류-의무려산줄기 이동지역을 차지하고있음으로써 고조선의 옛땅을 수복하였다는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의 하나로 된다.

《송서》 고구려국전은 이러한 사료적가치를 가지는 반면에 일정한 제한성도 가지고있다.

그 제한성은 우선 역대 중국의 력사기록일반이 그러하듯 《송서》 고구려국전에 서도 고구려가 송나라로부터 《책봉》을 받고 《공물을 바쳤다.》고 함으로써 고구려가 마치도 송나라의 《속국》, 《지방정권》인것처럼 서술한것이다.

그러나 《책봉》, 《조공》은 봉건시기 동방국가들의 외교무역관계에서 하나의 의례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송서》 고구려국전에는 송태조때에 북

연이 해마다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공물을 바치고 435년에는 송나라가 북연왕 풍홍에게 더 높은 벼슬을 제수한 사실이 기록되어있다. 이것을 일부 나라 학자들의 《론리》대로 해석한다면 북연은 송나라의 속국이나 지방정권으로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과는 너무나도 어긋나는 《결론》이다. 그것은 누구도 북연이 송나라의 속국, 지방정권이라고 생각하고있지 않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고구려만이 그 누구의 《속국》, 《지방정권》이라고 하는것은 비과학적이며 편견적인 주장이다.

고구려는 《송서》 고구려국전에 서술되어있는것처럼 북연왕 풍홍의 망명요청을 수락하고 고구려로 하여금 그를 돌려보내라는 송나라의 요구를 단호히 물리치고 풍홍을 처단하였으며 송나라의 군사적간섭을 단호히 물리친 자주적인 주권국가, 동방의 강대국이었다.

송나라는 강대국 고구려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오히려 인정하지도 않는 고구려왕에 대한 《책봉》호를 점

점 더 높이면서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 무슨 《책봉》이나 《조공》의 실상이 봉건국가들사이에 있었던 외교적인 의례형식에 지나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줄뿐이다.

《송서》 고구려국전의 제한성은 또한 그것이 고구려에 대한 폭넓은 자료를 서술하지 못하고 고구려의 대외관계일면만을 취급하고있는데서도 나타났다.

《송서》 고구려국전은 고구려의 정치, 경제, 문화제도, 대외관계를 서술한 《후한서》, 《삼국지》 등 이전의 중국정사들과는 달리 고구려-송관계 기사들만을 기본적으로 취급하였다.

이것은 고구려가 중국밖의 다른 나라인것으로 하여 《송서》의 필자인 심약이 고구려에 대하여 다방면적으로 알고있지 못한 사정과 관련된다고 볼수 있다.

이처럼 《송서》 고구려국전은 고구려가 높은 대외적지위를 지니고 넓은 령토를 차지한 우리 민족의 강력한 주권국가, 동방의 강국이였다는것을 보여준다.